

배포 일시	2022. 9. 23.(금)		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	책임자	과 장 김연희 (044-201-4987)
		담당자	사무관 이지형 (044-201-4985) 사무관 이지연 (044-201-4989)
<지원>	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센터	책임자	센터장 석인호 (055-771-4882)
		담당자	부 장 권형준 (055-771-4645)
보도일시	2022년 9월 24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3.(금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대한민국 안전대(大)전환 기간,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- 9월말까지 지자체·유관기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, 현장 의견청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23일 건축정책관과 국토안전관리원,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, 송파구청과 함께 서울 가락동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.
  - 이번 점검은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(총전 국가안전대진단)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,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.
-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은 오금공원과 맞닿은 대로변과 아파트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을 해체하는 현장으로, 허가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바 있다.
  -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과 인접한 보행로와 주거지역 안전관리, 10톤 이상 중장비를 건물에 올려서 해체하는 현장작업 등이 계획서대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,

- 도심지 내 해체공사장에 필요한 안전관리, 감리자 관리·감독 등 현장 운영사항 중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였다.
- 특히,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강화하여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 공사제도\*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점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,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·기술지원 사항도 검토하였다.
  - \*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「건축물관리법」 개정
  -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현장중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, 시공자-감리자-공공의 3중 안전 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,
  - 국토안전관리원은 제도의 현장적용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검토, 감리자 교육,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선 등 지원업무를 더욱 면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.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건축물의 노후화·대형화·복합화로 해체공사도 대형화·고도화되고 그 수도 많아질 수 있어,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정된 해체공사제도의 이행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”이라며,
  - “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정부도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안전관리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